

초등학교 6학년의 부정적 인지과정·분노 경험·공격성 간의 관계

김 경 숙

(경인교육대학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정서와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현상이며 심리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Ellenson, 1982). 그러한 정서나 감정 중에서도 분노는 모든 사람들이 빈번히 경험하는 것으로, 인간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정서 가운데 하나이다. 분노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감정이지만, 동시에 위협적인 상황에 적응하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생존을 도와주는 감정이기도 하다(Lazarus, Kranner, & Folkman, 1980, 서수균, 2004, 재인용). Carter와 Frank(1995)는 분노가 개인의 가치와 본능적인 욕구 및 기본적인 신념들을 보존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Crokenberg(1981)는 분노를 스트레스와 좌절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으로도 보았다(서수균, 2004, 재인용). 이처럼 분노는 위협이나 공격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감정이며,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면 개인의 생리·인지·환경·행동적 영역들을 적절하게 유지시키며, 인간관계에서도 의사소통의 역할을 함으로써 발생 가능한 공격상황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런데 분노가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억제되면 위궤양이나 고혈압 혹은 심장병과 같은 신체적 손실을 가져오기도 하며, 다른 부정적인 행위나 정서로 대치되어 난폭한 말씨·행동 등의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Sharkin, 1988, 채유경, 2001, 재인용). 또한, 분노의 강도·빈도·지속 속도가 과도할 때에는 타인 및

자신을 향하여 파괴적인 공격성을 띠면서 육체적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다(강신덕, 1997).

이렇게 분노를 경험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인지상담 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에 대해 개인마다 해석하는 인지과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인지과정에 따라 분노 경험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분노 경험의 정도에 따라 분노 경험의 표현 방법 중의 하나인 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합리적 신념과 특정한 종류의 사고와 부당하다는 생각과 상실적 사고 등의 부정적인 인지적 요소들은 초기의 감정 유발 단계를 비롯하여 분노의 과정에 계속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고영인, 1994).

이러한 인지과정은 분노 유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연구가 매우 미비하게 진행되어 왔다. 분노 현상의 유발 원인에 관련된 연구들(권혜진, 1994; 박성혜, 1995)이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노를 감소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남미영, 2003; 류소영, 1995; 서미화, 2002; 임소영, 2000; 최효선, 2002; 양은자, 2003; 허은순, 2003), 분노 표현 양식과 관련해 분노 표현 척도를 가지고 그 현상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고영인, 1994; 서지영, 1996; 김미란, 2001)은 많지만, 인지적 과정을 살펴보며 분노의 유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본 논문들은 거의 없다. 인지적 과정에 관련한 연구라 하여도 유방암 여성의 분노에 관한 인지적 인과구조 모형을 살펴보는 박미영(2003)의 논문, 분노 수준과 분노 표현 방식의 차이에 비합리적 신념이나 상황평가 변인 등의 인지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채유경(2001)의 논문이 있으며, 근래에는 분노와 관련한 인지적 요인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에 따른 치료적 프로그램을 개발한 서수근(2004)의 연구가 인지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유의미한 논문이다. 그러나 그 대상에 있어서 청소년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의 분노와 관련된 인지과정에 관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이렇듯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분노 경험의 현상 및 표현 방법에 관한 연구들이나, 분노 조절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 인지과정을 알아볼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지과정과 분노의 관계를 보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과 분노 표현 방법의 하나인 공격성을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분노 경험과 공격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의 관계 연구는 초등학생의 분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노와 공격성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초등학생의 지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의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연구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부정적인 인지과정은 분노 경험과 관련 되는가?
- 둘째, 분노 경험은 공격성과 관련 되는가?
- 셋째,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은 공격성과 관련 되는가?

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주요 용어로 등장하는 분노와 분노 경험, 인지과정과 부정적 인지과정, 공격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가. 분노 경험

분노란 외부 사건 및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왜곡된 인지과정을 통해 나타나는 정서 중의 하나이다. 가벼운 수준의 성가심이나 짜증에서부터 격노나 격분·강한 홍분 상태에 이르는 강도가 다양한 감정들로 구성된 정서 상태이다(Spielberger & London, 1985, 장경도, 2004, 재인용). 분노 경험은 정도에 관계없이 경미하게라도 ‘화난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을 포함하여, ‘상대를 공격하는 장면 떠올리기’ 등의 사고나 심상 경험(김교현, 전겸구, 1997) 모두 분노 경험에 포함된다.

나. 부정적 인지과정

인지과정이란 외부 사건 및 대인 관계에 대해 개인의 판단력을 작용하여 해석 및 의미부여·평가를 하는 의식적 과정이다(Beck, 2000). 부정적 인지과정은 부적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해석과 의미부여의 과정을 통해 대상에 대해 왜곡되게 인지하거나, 비합리적인 사고·유발 사건에 의해 활성화된 비합리적 신념에 의해 생성되는 자동적 사고·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고이다.

다. 공격성

공격성이란 언어 및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도성을 띤 것을 의미한다. 언어적 공격성은 소리치기·고함치기(Buss, 1961) 등의 부정적인 어조와 위협·욕설·비판적인 말의 내용을 포함한다. 행동적 공격성은 직접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와 간접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이나 농담·심술부리기·미움 받는 대상이 직

접적으로 공격받지는 않으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공격을 받도록 하는 간접적인 행동(Buss, 1961)을 포함한다. 이 외에도 수동적 공격성과 흥분성 및 죄의식까지 공격성에 포함된다.

II. 이론적 배경

1. 부정적 인지과정 · 분노 · 공격성의 관계

분노는 어떤 잘못된 지각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개인의 평가와 해석에 따른 부정적 인지과정의 결과이다(Averill, 1983, 이규미, 1999, 재인용). 또한, 분노는 부정적인 정서와 분노에 관련된 느낌·사고·기억·개인의 공격 성향과 연합망을 형성하여 생성되기도 한다(Berkowitz, 1990). 부정적인 정서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 분노를 대신하여 불안·경쟁·질투·죄책감·우울까지 비교적 복잡한 정서 경험으로 대치될 수도 있는데, 복잡한 부정적인 정서적 경험은 고차적인 인지과정에 의해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고차적인 인지과정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여 비공격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하지만, 적개심이나 공격성을 직접 표현하기도 한다(서수근, 2004). 이렇듯 원활한 인지과정을 통해서는 적절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지만, 해석과 평가를 문제 상황으로 이끌어 부정적인 인지과정을 거치게 되면 분노와 같은 부적절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외부사건에 대한 인지적 왜곡과정은 심리적인 불편을 만들어내고 이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감정적인 반응은 곧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Beck, 2000). 그리고 이러한 분노가 왜곡되어 불건전하게 파괴적으로 표현되면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Bilodeau, 1992).

김계현(1993)의 연구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분노라고 하며, 그 원인 중의 하나로 ‘왜곡된 지각’을 들었다. 분노와 인지적인 지각과의 관계는 인지적 작용에 의해 분노가 생기는 과정, 그리고 분노라는 감정에 인지적인 작용이 가해져서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는 과정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 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인지적인 지각은 분노의 감정을 유발하고, 이 분노는 곧 공격적인 행위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인지 이론을 바탕으로 한 김교현과 전겸구(1997)의 ‘분노의 선행요인, 분노 경험, 분노 표현 그리고 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분노 모형’을 보면, 적대감은 분노 자극과 그에 대한 인지적 평가 사이의 매개 변인으로 보고 있으며, 공격은 분노 경험에 대한 대처 방법의 하나인 분노 표현의 한 형태로 보고 있다. 분노를 경험과 표현의 차원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것이다. 즉, 공격성이란 분노를 경험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써, 분노가 곧 공격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분노를 경험

한다고 반드시 공격성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지만, 공격성은 분노의 경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노 표현 양상 중의 한 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간의 의식적인 인지과정과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인간의 분노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행사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면 공격적 분노 혹은 비공격적 분노를 갖게 되고, 이러한 분노를 어떠한 방법으로 표출하게 되는지, 분노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 C초등학교의 6학년 남·여 아동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하여 총 1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100부를 회수하였다. 이는 불성실하게 답을 한 설문지를 배제하고 취합한 것이다.

설문지는 아동이 직접 작성하였으며, 질문지 답변 능력과 초등학생 중 인지구조가 가장 발달하여 자신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좀 더 유리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6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부정적 인지과정 도구

부정적 인지과정 도구는 분노 경험에 영향을 주는 부정적인 인지과정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수균(2004)이 제작한 일차적 분노사고 척도를 사용하였다. 다만, 6학년 남·여 아동 8명을 선발하여 미리 검사를 실시하고, 질문의 과정을 거친 결과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항들, 즉 13번 문항의 '발표준비'를 '모둠과제'로, '동료'를 '친구'로, 14번 문항의 '이행하다'를 '지키다'로 바꾸는 것이 문장의 이해에 용이하다고 하여 단어를 수정하였다. 이 부정적 인지과정 척도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의 두 요인을 반영하고 있는데, 두 하위 척도 간의 상관은 $r=.707(p<.01)$ 로 높아서 두 하위 척도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정적 인지과정 척도는 총 20문항이며, 5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음'(1점), '약간 그러함'(2점), '어느 정도 그러함'(3점), '상당히 그러함'(4점), '거의 정

확히 그려함'(5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20문항을 합산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20~100점이다.

부정적 인지과정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타인의 부당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요인의 값이 .800,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요인의 값이 .828이다. 전체 Cronbach's α 는 .886으로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나. 분노 경험 도구

분노 경험 도구는 Spielberger(1983)가 제작한 상태-특성 분노 검사(State-Trait Anger Scale: STAS)를 강신덕(1997)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6학년 남·여 아동 8명을 선발하여 미리 검사를 실시하고, 질문의 과정을 거친 결과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항들, 즉 1번 문항의 '격분'을 '심하게 분노함'으로, 2번 문항의 '언짢다'를 '기분이 나쁘다'로 바꾸는 것이 문장의 이해에 용이하다고 하여 단어를 수정하였다.

이 분노 경험 척도는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두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태분노 척도는 개인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분노 상태를 측정하고 있으며,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는 .938로 나타났다. 특성분노 척도는 개인이 좌절과 문제 상황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분노 경향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전체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적 합치도는 .911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단순히 분노 유발 상황에 대한 평정치만 얻기 위한 검사들과 달리, 실제적인 분노의 정서적 경험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하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즉 이 척도는 피험자의 분노 감정 경험뿐만 아니라 특정 시간에 경험하는 감정의 강도까지도 측정하며, 높은 내적 일관성과 광범위한 규준 및 타당도를 가지고 있어 분노 관련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분노 경험 척도는 4점 척도로서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음'(1점), '약간 그려함'(2점), '많이 그려함'(3점), '거의 정확히 그려함'(4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30문항을 합산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30~120점이다. 분노 경험 척도의 Cronbach's α 는 .938로 비교적 높은 내적 합치도를 보였다.

다. 공격성 도구

공격성 도구는 공격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공격성 검사(BDHI: Buss Durkee Hostility Inventory)를 노안영(1983)이 번안한 공격성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다만, 6학년 남·여 아동 8명을 선발하여 미리 검사를 실시하고, 질문의 과정을 거친 결과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항들, 즉 18번 문항의 '죄의식'을 '자신의 잘못함'으로, 26번 문항의 '모욕'을 '욕하거나 흥분'으로, 28번 문항의 '격분'을 '심하게 화냄'으로, 28번 문항의 '조롱'을 '비웃고 놀림'으로, 30번 문항

의 ‘강경한 언사’를 ‘나쁜 말(심한 욕)’로, 32번 문항의 ‘뿌루통해’를 ‘빼지다’로, 36번 문항의 ‘호통’을 ‘화가 뜹시 나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꾸짖음’으로, 41번 문항의 ‘시비조’를 ‘싸움을 결다’로, 43번 문항의 ‘낙제’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함’으로 바꾸는 것이 문장의 이해에 용이하다고 하여 단어를 수정하였다.

이 공격성 척도는 원래 6개 하위 요인의 총 75문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수준에서 적의성(원한) 현상은 두드러지지 않는바 삭제하여 사용하였다. 이에 5개 하위 요인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4문항(1, 8, 13, 21, 27, 30, 39, 42, 49, 52, 53, 57, 59)은 역 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한편, 신뢰도 검증 결과 ‘언어적 공격성’(2,5,11,17,22,24,30,33,40,41,46,54)의 신뢰도가 .476으로 낮게 나왔다. 이에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5번 문항과 22번 문항을 제거하였다(제거지수 .562이상). 그리고 다시 신뢰도 재검증을 한 결과 신뢰도가 .568이며,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두 문항을 제거한 것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수동적 공격성’(3,9,10,14,15,21,29,32,35,48,49,53,59)의 신뢰도가 .256으로 매우 낮게 나왔다. 이에 1차 신뢰도 재검증을 하여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3번, 9번, 29번, 49번, 59번 문항을 제거하였고(제거지수 .429이상), 2차 신뢰도 재검증을 하여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10번 문항을 제거하였고(제거지수 .456이상), 3차 신뢰도 재검증을 하여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21번 문항을 제거하였다(제거지수 .470이상). 그리고 다시 신뢰도 재검증을 한 결과 신뢰도가 .471이며,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일곱 문항을 제거한 것을 바탕으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신체적 공격성’과 ‘홍분성’과 ‘죄의식’은 제거지수에 문제가 있는 문항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 검증한 신뢰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논의하였다.

본 척도는 ‘예’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51문항을 합산하여 가능한 점수 범위는 51~102점이다. 공격성 척도의 전체 K-R-20은 .823이며, 하위 요인별 K-R-20은 신체적 공격성이 .707, 언어적 공격성이 .568, 홍분성이 .545, 수동적 공격성이 .471, 죄의식이 .535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별 내용을 살펴보면, 신체적 공격성은 공격 대상에게 신체적 상처나 고통을 주려고 의도하거나 물건을 손상시키려는 성향을 의미하고, 언어적 공격성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언어적 행동과 경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홍분성은 자신 또는 타인에게 홍분하는 경향을 말하며, 수동적 공격성은 수동적으로 자신의 공격 욕구를 표현하는 것으로 고집·거부적 태도·꾸물거리기·상대방 무시 등의 행동을 의미한다. 죄의식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느끼는 의식의 상태를 의미한다.

3. 자료 수집 방법

경기도 소재 C초등학교 6학년 4학급의 남·여 아동을 대상으로, 2005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정적 인지과정 척도와 분노 경험 척도와 공격성 척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의 관계, 분노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수집된 자료들을 SPSS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사용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 K-R-20 값을 구하였다. 둘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평균 및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구하는 단순 기술통계기법을 사용하였다.

셋째, '부정적인 인지과정은 분노 경험과 관련 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및 하위 요인별로 상관분석(Correlation)을 하였고, '분노 경험은 공격성과 관련 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및 하위 요인별로 상관분석(Correlation)을 하였다.

넷째,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은 공격성과 관련 되는가'라는 연구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전체 및 하위 요인별로 단순·다중회귀분석(Simple &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모든 변인이 동시에 투입되어 하나의 회귀모형에 들어가는 Enter 방법을 선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기초자료로서, 초등학교 6학년 남·여 아동 총 100명의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과 공격성에 대한 평균값 및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제시하면 <표 IV-1>과 같다.

<표 IV-1>에 의하면 부정적 인지과정의 평균은 2.71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의 평균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의 평균이 2.72,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의 평균이 2.70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과정 전체 평균 범위는 최소 1.50에서 최대 4.70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하위 요인의 평균 범위는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이 1.27에서 4.55까지 분포했고,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 1.11에서 4.89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분노 경험의 평균은 1.64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 중 상태분노의 평균이 1.36, 특성분노의 평균이 1.92로 나타났다. 분노 경험 전체의 평균 범위는 최소 1.10에서 최대 3.77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하위 요인의 평균 범위는 상태분노가 1.00에서 4.00까지 분포했고, 특성분노는 1.13에서 3.67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공격성의 평균은 1.49로 나타났으며, 하위 요인들의 평균은 1.43에서 1.57까지 나타났다. 공격성의 전체 평균 범위는 1.14에서 1.84까지 분포하고 있었으며, 하위 요인의 평균은 신체적 공격성이 1.00에서 1.88, 언어적 공격성이 1.00에서 1.90, 홍분성이 1.10에서 2.00, 수동적 공격성이 1.00점에서 2.00, 죄의식이 1.11에서 2.00까지 분포하고 있었다.

<표 IV-1> 부정적 인지과정, 분노 경험, 공격성의 평균 및 표준편차 (N=100)

척도	하위 요인	평균 (M)	표준편차 (SD)	최소값 (Min)	최대값 (Max)
부정적 인지 과정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2.72	.74	1.27	4.55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2.70	.78	1.11	4.89
	전 체	2.71	.70	1.50	4.70
분노 경험	상태분노	1.36	.55	1.00	4.00
	특성분노	1.92	.63	1.13	3.67
	전 체	1.64	.51	1.10	3.77
공 격 성	신체적 공격성	1.43	.20	1.00	1.88
	언어적 공격성	1.46	.20	1.00	1.90
	홍 분 성	1.57	.21	1.10	2.00
	수동적 공격성	1.51	.24	1.00	2.00
	죄 의 식	1.55	.21	1.11	2.00
	전 체	1.49	.15	1.14	1.84

1.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의 관계

아동의 부정적 인지과정, 분노 경험,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IV-2>와 같다.

<표 IV-2>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부정적 인지과정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707**

**p<.01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분노 경험	상태 분노
특성 분노	.496**

**p<.01

<표 IV-2>에 의하면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인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r=.707$,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IV-3>에 의하면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인 ‘상태분노’와 ‘특성분노’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r=.496$,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간의 상관관계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간의 상관관계

		부정적 인지과정	
구 분	전 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친밀한 관계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분노 경험	전 체	.470**	.384**
	상태분노	.327**	.249*
	특성분노	.476**	.404**

*p<.05, **p<.01

<표 IV-4>에 의하면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r=.470$,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 특성분노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r=.476$, $p<.01$)이 있었으며, 상태분노와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r=.327$, $p<.01$)이 있

었다. 또한, 분노 경험과 부정적 인지과정 하위 요인 간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 중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r=.494$, $p<.01$),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r=.384$, $p<.01$)과 모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한편,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과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밀한 관계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특성분노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r=.483$, $p<.01$)이 있었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특성분노 간에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r=.404$,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상태분노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r=.365$, $p<.01$)이 있었으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상태분노 간에는 낮은 정적 상관($r=.249$, $p<.05$)이 있었다.

2. 분노 경험과 공격성의 관계

아동의 공격성,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공격성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공격성의 하위 요인 간 상관관계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홍분성	수동적 공격성	죄의식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521**				
홍분성	.521**	.508**			
수동적 공격성	.382**	.453**	.431**		
죄의식	.003	.206**	.295**	.197*	

* $p<.05$, ** $p<.01$

<표 IV-5>에 의하면 신체적 공격성과 홍분성($r=.521$, $p<.01$), 신체적 공격성과 언어적 공격성($r=.521$, $p<.01$), 언어적 공격성과 홍분성($r=.508$, $p<.01$), 언어적 공격성과 수동적 공격성($r=.453$, $p<.01$), 홍분성과 수동적 공격성($r=.431$, $p<.01$), 신체적 공격성과 수동적 공격성($r=.382$, $p<.01$), 홍분성과 죄의식($r=.295$, $p<.01$), 언어적 공격성과 죄의식($r=.206$, $p<.01$), 수동적 공격성과 죄의식($r=.179$, $p<.05$)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체적 공격성과 죄의식($r=.003$)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는 <표 IV-6>과 같다.

<표 IV-6>에 의하면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r=.521$, $p<.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노 경험 전체와 공격성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면, 공격성의 하위 요인 중 언어적 공격성($r=.454$, $p<.01$), 흥분성($r=.450$, $p<.01$), 신체적 공격성($r=.407$, $p<.01$), 수동적 공격성($r=.375$, $p<.01$)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공격성 전체와 분노 경험 하위 요인 간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 특성분노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r=.571$, $p<.01$)이 있었고, 상태분노와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r=.313$, $p<.01$)이 있었다.

한편,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과 공격성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의 하나인 상태분노와 흥분성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r=.293$, $p<.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공격성($r=.233$, $p<.05$), 언어적 공격성($r=.220$, $p<.05$), 수동적 공격성($r=.217$, $p<.05$)과는 낮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죄의식($r=.120$)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의 하나인 특성분노와 언어적 공격성($r=.544$, $p<.01$), 흥분성($r=.474$, $p<.01$), 신체적 공격성($r=.455$, $p<.01$), 수동적 공격성($r=.418$, $p<.01$)과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죄의식($r=.070$)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의 상관관계

구 분	분 노 경 험		
	전 체	상태분노	특성분노
공 격 성	전 체	.521**	.313**
	신체적 공격성	.407**	.233*
	언어적 공격성	.454**	.220*
	흥 분 성	.450**	.293**
	수동적 공격성	.375**	.217*
	죄 의 식	.107	.120

* $p<.05$, ** $p<.01$

3. 분노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지과정의 회귀분석

아동의 부정적 인지과정이 변화함에 따라 분노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이 분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표 IV

-7>과 같다.

<표 IV-7>에 의하면 회귀 모형에 대한 기여율은 22.1%($R^2=.221$)로 독립변인인 부정적 인지과정은 종속변인인 분노 경험의 22.1%를 결정짓는다. 또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해보면 부정적 인지과정이 .470으로 나타났다. 이는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부정적 인지과정은 분노 경험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표 IV-7> 분노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지과정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기울기)	표준오차	β	R	R^2 (결정계수)
분노 경험	부정적 인지과정	.341	.065	.470***	.470	.221***

*** $p<.001$

한편, 아동의 부정적 인지과정 하위 요인이 변화함에 따라 분노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이 분노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표 IV-8>과 같다.

<표 IV-8> 분노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지과정 하위 요인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기울기)	표준오차	β	R	R^2 (결정계수)
분노 경험	부정 인지1	.047	.085	.068	.497	.247**
	부정 인지2	.292	.082	.446**		

** $p<.01$

* 부정인지1 :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 부정인지2 :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표 IV-8>에 의하면 회귀 모형에 대한 기여율은 24.7%($R^2=.247$)로 2개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분노 경험의 24.7%를 결정짓는다. 또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해보면,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446,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068 순으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이 .446으로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

험하는 무시와 실망감'은 분노 경험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4.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의 회귀분석

아동의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이 변화함에 따라 공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IV-9>와 같다.

<표 IV-9>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기울기)	표준오차	β	R	R^2 (결정계수)
공격성	부정적 인지과정	.031	.020	.149	.537	.289***
	분노 경험	.129	.028	.451***		

***p<.001

<표 IV-9>에 의하면 회귀 모형에 대한 기여율은 28.9%($R^2=.289$)로 2개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공격성의 28.9%를 결정짓는다. 또한,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해보면, 분노 경험 .451, 부정적 인지과정 .149 순으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분노 경험이 .451로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분노 경험은 공격성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과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표 IV-10>과 같다.

<표 IV-10> 공격성에 대한 부정적 인지과정 하위 요인과 분노 경험 하위 요인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기울기)	표준오차	β	R	R^2 (결정계수)
공 격 성	부정인지1 (부당, 예민성)	-.016	.023	-.080	.592	.350***
	부정인지2 (무시, 실망감)	.041	.023	.216		
	상태분노	.023	.026	.009		
	특성분노	.115	.024	.494***		

***p<.001

- * 부정인지1 :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 * 부정인지2 :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표 IV-10>에 의하면 회귀 모형에 대한 기여율은 35.0%($R^2=.350$)로 4개의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인 공격성의 35.0%를 결정짓는다. 또한, 각 독립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를 보기 위하여 표준화된 β 값을 비교해보면, 특성분노 .494,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 .216, 상태분노 .009,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080 순으로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분노가 .494로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기 때문에 특성분노는 공격성을 설명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의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이, 그리고 분노 경험과 공격성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경기도 소재 C초등학교 6학년 4학급 1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부정적 인지과정·분노 경험·공격성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간에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정적 인지과정과 분노 경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도 특성분노, 상태분노 모두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상관의 정도는 특성분노가 더 많은 상관이 있었다. 이는 부정적 인지과정이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상태분노보다 비교적 지속적인 개인의 분노 유발 기질을 보여주는 특성분노와 더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또한, 분노 경험과 부정적 인지과정 하위 요인 간에 나타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정적 인지과정 하위 요인 중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 모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부정적 인지과정의 하위 요인과 분노 경험 하위 요인 간의 상관에서도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특성분노 간에 관계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특성분노 간에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친밀한 관계 상황에서 경험하는 무시와 실망감'과 상태분노 간에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타인의 부당하고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예민성'과 상태분노 간에는 낮은 상관이 있었다.

즉, 부정적인 인지과정을 많이 겪는 사람일수록 분노를 더 빈번히 경험한다는 사실을 검증해 주는 것인데, 이는 분노를 유발하는 과정 중에 '인지'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Averill(1983), Lazarus(1991), Beck(2000), 채유경(2001)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분노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지각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가치판단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며(Averill, 1983), 자신의 목표나 자존심이 일차평가와 이차평가와 같은 인지과정에 의해 방해를 받음으로써 유발되고(Lazarus, 1991),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에 의해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부여 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다(Beck, 2000). 또한, 비합리적인 신념이나 상황 평가 변인 등의 인지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채유경, 2001). 따라서 부정적인 인지적 요소들이 분노 경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분노 경험과 공격성 간에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분노 경험 전체와 공격성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공격성의 하위 요인 중 홍분성, 언어적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과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공격성 전체와 분노 경험 하위 요인 간에 나타난 상관관계에서는,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 특성분노와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상태분노와도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과 공격성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의 하나인 상태분노와 홍분성 간에 의미 있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과는 낮은 상관이 있었고, 죄의식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노 경험의 하위 요인 중의 하나인 특성분노와 언어적 공격성, 홍분성, 신체적 공격성, 수동적 공격성과는 비교적 의미 있는 상관이 있었으나, 죄의식과는 의미 있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보다 많은 상황을 분노 유발 상황으로 지각하여 높은 분노 상태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고영인(1994)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상태분노가 높은 사람에 비해 특성 분노가 높은 사람이 분노를 경험하는 확률이 크고, 분노에 노출되는 상황이 빈번해질수록 이를 내적이나 외적으로 표출하는 정서적 공격과 신체적 공격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Kassinove와 Eckhardt(1995)의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분노 경험, 특히 특성분노가 공격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인지과정 → 분노 경험 → 공격성'과 같은 영향 관계를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인지과정은 분노 경험에 영향을 미쳤으며, 분노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부정적 인지과정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Beck(2000)의 이론, 김교현과 전겸구(1997)의 모형, Kassinove과

Eckhardt(1995)의 모델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건을 의미부여라는 해석을 통해 여러 가지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데, 자동적 사고는 분노 유발 과정에서 여러 단계를 거쳐 일어나며 이 사고를 거치게 되면 심리적·신체적 불편감을 경험하고 공격충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Beck, 2000). 또한, ‘부당한 처벌’이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같은 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사건들이나 ‘굴욕감’ ‘배신감’ ‘공포’와 같은 내적 자극들로 인해 잘못된 인지적 처리를 하게 되면 분노를 유발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분노를 경험하게 되면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게 되는데, 그 방법 중의 하나가 공격성이 되는 것이다(김교현 & 전겸구, 1997). 또, Kassinove & Eckhardt(1995)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에서 시작한 분노는 이를 외적으로 표출했을 때 정서적 공격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노를 경험한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상황판단 아래 공격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규미, 1999). 특히, 부정적 인지과정을 겪는다고 반드시 공격성을 경험하는 것이 아닌데, 이는 부정적 인지과정이 분노 경험이라 과정을 거쳐 공격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아동의 부정적 인지과정, 분노 경험, 공격성이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정적 인지과정은 분노 경험에, 분노 경험은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데, 부정적 인지과정은 분노 경험을 통해 공격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며,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노 경험, 특히 특성분노라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아동의 공격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인지와 특성분노를 조절하기 위한 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노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인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비합리적이거나 왜곡된 사고양상을 확인하고, 논박을 통해 적응적인 신념체계와 왜곡되지 않은 사고양상을 새롭게 구성하도록 하는 인지적 재구성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다 많은 상황을 분노 유발 상황으로 지각하게 되는 특성분노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주장 훈련과 사회기술 훈련과 같은 기술 훈련, 긴장 이완법, 흥분 조절 훈련, 감정 이입 훈련, 정화 요법 등을 통해 공격성으로 이어지는 분노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부정적인 인지와 특성분노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법들이 연구되어야 분노와 공격성으로 인해 곤란함을 겪는 아동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 인지와 특성분노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법들에 관한 연구의 기초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인지과정을 측정하는 검사도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정적 인지과정 검사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을 초등 학생의 수준에 맞춰 수정하여 실시하였는데 부정적 인지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그것 하나뿐이었다. 그러므로 초등학생의 특성을 토대로 한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는 인지과정 측정도구 개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분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보다 다양하다. 다른 변인들도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다 다양한 변인들에 관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인지와 특성분노의 조절에 대한 다양한 개입방법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강신덕(1997). 비행청소년 분노조절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고영인(1993). 분노의 심리적 과정 모형.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연구소, 28, 133-164.
- 고영인(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권영덕(2002). 분노 조절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영향(중학교 여자 축구부원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 권혜진(1995). 청소녀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경희(1995). 정서란 무엇인가. 서울: 민음사.
- 김계현(1993). 분노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청소년 범죄 연구, 제 11집, 49-64.
- 김교현, 전겸구(1997). 분노, 적개감 및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학회지: 건강, 2, 79-95.
- 김미란(2001). 고등학생의 분노수준과 분노표현 방식에 따른 우울 및 공격성의 차이. 석사학위논문, 대구 가톨릭 대학교.
- 김용태, 박한샘, 강신덕(1995). 청소년의 분노조절 훈련 프로그램. 청소년 대화의 광장.
- 남미영(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1학년들의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학교.
- 노안영(1983). 비행청소년에 있어서 공격성과 불안의 감소에 미치는 주장 훈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류소영(1996). 비행청소년을 위한 분노대처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일 연구. 석

-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미영(2003). 유방암 여성의 분노에 관한 인지적 인과구조 모형.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 박성혜(1995). 분노 유발 상황과 분노 수준별, 청소년의 대처전략과 효과성 평가.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서미화(2002). 아동을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서수근(2004).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서지영(1995). 특성분노의 반응 양식과 이에 영향을 주는 제변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안근석(1991). 심리학 개론. 서울 : 형설출판사.
- 양은자(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적용이 가해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오선민(1999). 사회적 기술 훈련이 대학생의 분노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이규미(1999). 청소년의 분노와 분노처리과정에서의 공격행동에 관한 체험분석.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승재 역, Carter, L., & Frank, M. 저.(1995). 분노 [The anger Workbook]. 서울: 은혜출판사. (원전은 1993년에 출판.)
- 이윤경(2002).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장경도(2004). 마음 공부가 아동의 성격, 자아개념, 분노 통제력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 장문선(1997). 분노표현방식과 사회적 지지가 심장혈관반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 조현준, 송영혜, 조현재 역, Mash, E. J., Wolfe, D. A. 저.(2001). 아동 이상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 채유경(2001). 청소년 분노 표현방식의 모델 및 조절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최효선(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시행과정 연구: 비행아동의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개성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허은순(2003). 분노조절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 Beck, A. T.(2000). *Prisoner of hate: The cognitive Basis of anger, hostility, and violence*. New York: Perennial.

- Buss, A. H.(1961).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Wiley.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arson, N. R.(1991). *Physiology of Behavior*. Boston: Allyn & Bacon.
- Deffenbacher, J. L., & McKay, M.(2000). *Overcoming situational and general anger*. Oakland: New Harbinger.
- Ellenson, A.(1982). *Human relations*.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 Forman, S.(1980). A comparison of cognitive training and response cost procedures in modifying aggressive behavior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Behavior Therapy*, 11, 594-600.
- Kassinove, H. & Eckhardt, C. I.(1995). An anger model and a look to the future, Kassinove, H. (Ed.). *Anger disorders : definition, diagnosis, and treatment*. Taylor & Francis. 197-204.
- Lazarus, R. S., Kranner, A. D., & Folkamn, S.(1980). An ethological assessment of emotion. In R. Plutchik, & H. Kellerman(Eds.).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Vol. 1*, 198-201. New York: Academic Press.
- Lazarus, R. S.(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Thornburg, H. D.(1982). *Development in adolescence*. CA: Books/Cole Publishing Company.

Abstract

The Relations Between The 6th Graders' Negative Cognitive Process · Anger Experience·Aggressiveness

Kim, Kyoung-Sook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 between 6th graders' negative cognitive process and anger experience and aggressiveness. To achieve the goal, it conducted a test to examine children's negative cognitive process, anger experience, aggressiveness targeting 100 children of 6th grade in C elementary school, Gyeonggi province. Then it conducted SPSS 12.0 statistical program to get the results of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outcome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a meaningfully positive relation between a negative cognitive process and anger experience. In other words, children having more negative cognitive process seemed to experience the feelings of anger more often, this presented the important role of cognition while getting into a temper.

Second, it reported a positive relation between anger experience and aggressiveness.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anger more often showed more violent behaviors, especially there were mo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 between trait-anger and aggressiveness compared to state-anger and aggressiveness. This could explain some possibilities that children with high level of trait-anger might outrage more often than others by recognizing the situations as anger stimulants.

Third, when conducting a regression analysis, a negative cognitive process made an effect on anger experience which affected aggressiveness. However, it did not show a negative cognitive process making a direct effect on aggressiveness. This is considered that children could experience an anger while evaluating an event or object in a negative way based on individual belief, and emotional · linguistic · behavioral aggressiveness would be formalized as they express the sparked fury either internally

or externall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ved that there were clos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negative cognitive process and anger experience and aggressiveness. A negative cognitive process affects anger experience, and anger experience affects aggressiveness afterwards. A negative cognitive process affects aggressiveness through anger experience indirectly, and especially trait-anger among anger experience is the main factor to influence on aggressiveness. With consideration of these results, it is believed that mediation is important key to moderate the negative cognition and trait-anger in order to diminish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s. This study has a meaning to provide searching for manifold mediating methods between negative cognition and trait anger, with a fundamental resource.